

2008년 8월 13일 수 말씀

모두 자기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 때도 보면 자기위치에서 뛰지 않습니까? 축구선수면 자기 위치에서 뛰어야 하는데 안 뛰고 뒤 쪽에 다 몰리면 골이 들어갑니다. 자기위치에서 막 시킵니다. 선생님도 산에 있을 때 누가 왔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오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도자가 나온 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는 일은 과정 중에는 전혀 모릅니다. 결론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인간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인간은 좋은 대로만 가려고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덤불을 헤치며 계속 가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밤에 갈 때 앞에 가다보면은 바위가 나오고 절벽이 나오고 굴러 가다보면은 땀 데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위를 기어올라 저 끝까지 숲속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일하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내가 걱정이 아니라 어린 회원들 신앙이 걱정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러지 말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붙잡고 그들 세상의 책임을 위해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런 판국에 세상이 불신 했을 때 내가 불신한 세계에 다른 판국을 취하지 않았으면 이 신앙역사 깨졌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잠시 내가 산에 있을 때 몇 번 내려왔습니다. 나 아니면 역사 못하냐고, 월남 안가면 안 되냐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안 되면 또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왜 그런가 하면 섭리 전체가 안 컸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컸으니까 섭리 전체가 일어나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남에서 총알 날아왔을 때 그때 순간 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말라 한 것입니다. 꼭 죽을 것이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죽을 것을 살려준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난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난 것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육신의 전쟁터에서 살아난 것도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더 무섭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너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썼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세밀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

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도 고생하라고 지옥에다 놓고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포기하고 지옥생활 하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깐 너가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실감나게 뼈저리게 느끼고 가야 사람들에게 ‘지옥론’을 제대로 써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론교육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교육을 시켜서 나를 연단시켜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론교육 안 받고 나에게 실제교육 확실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다 산 것입니다. 고통도 받고 울기도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게 실제 교육입니다. 마음으로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육신이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과 귀신을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 믿어서’라고 하면 언제 예수님이 와서 날보고 믿으라고 했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낸 것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더불어서 찍힌 걸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도 사람을 보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통하니까요.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는 자식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부모들이 돈 벌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자식이 힘내면 부모도 막 힘을 냅니다. 그런 것과 똑 같습니다. 신앙의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약하면 약해지고 강해지면 그냥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끊임없이 강합니다. 선생님 월남에서 적들이 총 가져다가 쏘을 때도 하나님이 그 때 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섭리도 못 뛰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까? 뜻이 있으니 살려주신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질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원한을 신앙으로 풀었습니다. 사도들이 일어나 하나가 되어 세계 역사의 입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2천년 동안 지구를 덮을 만큼 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고는 그 시대 선고였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걱정입니까? 선생이 튼튼한데요

과거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것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월명동에서 돌을 쌓을 때 꼭 7번 죽을 뻔 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